



시간여행 시즌 II 남도, 시간속을 걷다

<16> 나주잠사(蠶絲)

명주실을 뽑는 기계 앞에 나란히 선 옛된 소년들의 뒷모습이 아련하다. '우리는 수출산업의 역군이다'는 표어가 붙은 곳에서 일하는 젊은 누이의 모습도 보인다. '나주잠사'라 써진 커다란 비닐 푸대에서 누에고치를 골라내는 할머니들의 표정은 또 어떨까. 1960~70년대 나주 잠사공장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은 들여다 보며 세월의 흔적을 읽는다. 유명한 나주곰탕집 거리 인근엔 오래전

부터 나주잠사(蠶絲) 주식회사가 있었다. 1910년 일본인 센가가 설립한 게 그 출발이었다. 1990년대 가동이 멈추면서 폐공간으로 남아있던 이곳은 지난 10월 18일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하얀 누에고치는 앞에서 깨어난 후 제 몸의 1만배나 되는 실을 뽑아낸다고 한다. 명주실을 뽑아내던 곳이 이제는 문화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명주실 뽑던 그곳



20일 찾은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어렵게 옛 흔적들을 만날 수 있었다. 멀리서도 보이는 붉은 벽돌의 높은 굴뚝은 문화센터의 랜드마크다. 굴뚝 옆을 비롯해 건물 내외관 곳곳에는 잠사 공장에서 쓰던 기계들을 그대로 배치해 뒀다.

나주는 옛부터 집집마다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쳤다. 1928년 통계에 따르면 나주 잠업은 전남도 최고치 수준이었다. 일본 패망과 함께 일본인들이 떠난 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주 잠사는 파괴된다. 이후 1954년 김용두씨가 주식회사 나주잠사로 재설립한 후 전성기를 맞는다. 기계 52대 설치하고 한 때는 232대를 허가받기도 했다.

잠사가 다시 성행한 건 5·16 군사 쿠데타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촌 소득 창출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당시 어린 소녀들과 젊은 누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시골 사는 여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엄두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공간 오픈을 준비하며 당시 이곳에서 일했던 70대 어르신들을 만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따뜻한 물로 누에고치 번데기를 삶고 나면 그 물을 육수라고 먹기도 하셨다고요. 그 물로 빨래도 하구요. 번데기를 삶아서 팔기도 하셨답니다."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단 아카이브 PD 황정운씨의 설명이다.

한 때 번성했던 잠사업은 점차 힘을 잃는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잠사 수출이 감소되고 1980년대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 때문에 인력난을 겪게된다. 여기에 화학 섬유가 인기를 모으면서 잠사업은 사양 산업이 됐고, 나주 잠사도 1990년대 문을 닫는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공장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국비와 시비 등 57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나주시가 운영을 맡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 '나빌레라'는 누에고치가 나비가 돼 훨훨 날아오르듯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센터는 갤러리, 공연장, 음악창작실, 영상제작소, 공예창작소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나주 잠사

1910년 일본인이 설립

전쟁 후 농촌 소득 창출 효과

1990년대까지 가동

누에고치 옮기던 기계 보존

나빌레라문화센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선정

갤러리·공연장·영상제작소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연말까지 한·중 '천년의 창'전

내일부터 나주 기록 사진전도

별해서 2층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입구 왼쪽에도 또 다른 갤러리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김진송 작가의 '묵수 김씨전'이 열리기도 했다.

센터의 모든 계단은 매우 가파르다. 요즘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형식으로 공장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한 방편이었다. 어린이와 노인들이 오르내리기에 일부 계단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로 원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가동에서 2층으로 올라가 작은 다리를 건너가면 만나는 다동 건물은 미디어 창작소, 공예창작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밀조밀 작은 공간들은 예술인들이 재미있는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도모하기에 흥미로운 공간이다.

본 건물 옆에 자리한 소극장은 80석 규모로 그리 넓지는 않지만 층고가 높아 음악회 등을 열기에 적합해 보였는데 최근 연극 공연도 열렸다고 한다. 또 여공들의 기록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게스트 하우스, 레스토랑 공간 등 활용 방안을 모색중이다.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를 찾은 이들이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나주 잠사공장을 비롯해 나주의 옛모습과 생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열리는 나주 기록 사진전 '기억과 기록'에서는 옛 나주학교와 금성관 모습을 비롯해 나주잠사의 이모저모를 만날 수 있는 14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오픈일인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나주에서 활동하는 뮤지크바우이 주최하는 '이이남의 잠사 이야기-두 개의 시간'이 진행된다. 음악총감독 작곡가 김선철이 함께 공동 제작한 프로젝트로 정도천년을 앞두고 있는 나주의 미래 천년을 빛과 소리를 통해 표현했으며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최준영)과 뮤지컬 가수 김옥경이 공연을 펼친다. 그밖에 양나희 작가의 신작 등 30여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함께 열리며 미디어 아트 박람회 작가 작품도 전시된다.<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990년대 문을 닫은 나주 잠사는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로 거듭났다.



1960~70년대 나주잠사 모습(흑백사진)과 갤러리 변신한 공장 내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제공>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힐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